



이기심, 이타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다.
선한 시민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새롭게 발굴하고 보듬어야 할 가치가 바로 '사회적 가치'다.



☞ 최재천
☞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 jaeche9@gmail.com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미국의 유머 작가 로버트 벤츨리 Robert Benchley, 1889~1945가 남긴 재치 넘치는 말이다. 나는 후자에 속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셈이다. 결국 벤츨리의 ‘구분의 법칙 Law of distinction’이 깔아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지만 여전히 나는 이분법적 사고가 불편하다. 우리들이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가장 거창한 이분법적 사고는 아마도 성선설과 성악설의 구분일 것이다. 우리는 대개 각각 맹자와 순자가 주창한 학설이 완벽한 대립각

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을 주장한 고자告子도 있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은 것은 마치 물이 동서로 나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의 품성은 교육하고 수양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다. 서양에서는 로크 John Locke의 ‘Tablarsa^{빈 서판}’ 가설이 이와 맥을 같이하며 상당한 호응을 불러 일으켰지만 결국 유전학과 진화생물학 연구에 의해 우리 마음이 “아무 글자도 쓰여 있지 않고 아무 개념도 담겨 있지 않는 흰 종이”가 아니라 부모의 형태, 행동, 심성이 유전 정보 단위로 촘촘히 적혀 있는 DNA를 물려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¹⁾

실제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거의 맹목적으로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양심적이며 보응적報應的인 사람이 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우 체계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찾아서 실행한다. 그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체로 성공적이며 일부는 평생 편안한 삶을 누리기도 한다. 천성적으로 이타적인 사람들은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관대하다. 그리고 보응적인 사람reciprocator들은 평소에는 너그럽지만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때로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한 행위나 행위자를 기꺼이 응징한다. 정의로움도 진화하지만 그와 정반대인 악의spite도 진화할 수 있다. 이타성altruism의 진화를 ‘포괄 적합도inclusive fitness’라는 유전적 개념으로 설명한 위대한 생물학자 윌리엄 해밀턴William Hamilton은 악의의 진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²⁾ ‘Spite’는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라는 관용구이나 쓰일 뿐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자주 듣는 단어가 아니다. 이타성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신과 친족이 얻을 포괄적 이득이 남에게 베풀며 겪는 자신의 피해보다 클 때 진화한다. 이와 반대로 악의적 행동과 성향은 내가 받을 손해보다 상대가 입을 타격이 더 크면 진화할 수 있다. 문제는 지

1) 스티븐 핑커 지음, 김한영 옮김. “빈 서판. 인간은 본성을 타고 나는가.” 사이언스북스 (2004).
 2) William D. Hamilton.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r, I&II.”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1964) 7: 1-52.

난 50여 년 동안 참으로 많은 생물학자들이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의의 예를 찾았건만 아직 완벽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몇몇 예들이 보고되었지만 이내 다른 학자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인간은 예외다. 못 먹는 감 찢러나 보자는 심보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횡방을 놓는 질투 등 인간 사회에서 악의의 예는 차고 넘친다. 2019년 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목록에서 빼버린 결정도 전형적인 악의 행위다. 우리의 주력 산업에 타격을 입히면 일본 기업이 겪을 충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오로지 한국이 더 힘들 것이라는 계산을 손에 쥐고 감행한 어리석은 인간 악의의 전형이다. 아직은 가설 수준이지만 나는 악의가 인간 세계에서는 황행하지만 동물계에서는 진화하지 않은 이유를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이 서로 물고 뜯는 와중에 주변의 다른 경쟁자들이 득세하며 악의의 고리에 얽힌 당사자들은 종종 동반 추락하고 만다. 일본 정부의 비신사적 행위에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 무렵 상당수의 국제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이 악의의 고리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이웃나라 대만과 중국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 상황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과 분석조차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인간 세계에서는 늘 이렇게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언젠가 인류가 멸종한다면 그건 바로 ‘악의의 저주 curse of spite’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도 없지만 잡은 손 물어뜯고 살아남은 생명은 더더욱 없다.³⁾

행동경제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인간 집단을 상대로 인간의 경제 심리를 검증하는 행동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사회의 통념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극히 적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흔하면 우리가 테레사 수녀님, 이수현씨,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을 특별히 존경하고 기릴 까닭이 없다. 이기적인 사람들도 생각만큼 그리 많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전체 조사 대상의 1/5~1/3



정도로 나타났다. 압도적인 대다수는 대체로 양심적으로 행동하며 기꺼이 불의를 응징하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번돈의 일부를 성실하게 세금으로 헌납해 국가로 하여금 덜 가진 사람들을 보살피게 하고,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꺼이 투표장에 나타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평범한 시민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윈의 자연선택론 theory of natural selection 을 어설피게 이해하면 한정된 자원을 누구보다도 먼저 확보하는 자가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는 지극히 단층적인 논리에 빠진다.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 는 존재의 역사 20~25만년에서 농경과 산업 활동을 한 최근 1만 년 남짓을 뺀 나머지, 즉 압도적인 기간 동안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았다. 남성들은 사냥을 했고 여성들은 번번이 빈손으로 귀가하는 남성들의 졸수에 대비해 집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열매나 견과로 안정적인 저녁을 마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들이 큰 사냥감을 포획하면 모두가 귀한 동물성 단백질

3) 최재천 지음.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생터 (2014).



질을 섭취하게 된다. 사냥에 성공한 한 남성 혹은 일군의 남성들이 자신들의 유전적 적합도^{genetic fitness}, 즉 상대적 번식 성공도^{reproductive success}를 높이기 위해 사냥한 고기를 독점할 수 있었을까? 아프리카의 무더운 날씨에 냉장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가족만 먹이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다 고기를 번번이 썩혀 버리는 것보다 모두와 나눠 먹는 게 훨씬 현명하다. 오늘은 내가 베풀지만 내일은 내가 베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조상은 일찌감치 협력의 지혜를 터득했다.⁴⁾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생물종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상리공생^{mutualism}이라 부르는데, 악어와 악어새, 말미잘과 숨이고기 등의 관계가 이에 속한다. 한 종에게는 이득이지만 다른 종에게는 손해가 되는 관계가 포식^{predation}과 기생^{parasitism}이다. 포식 동물은 먹이를 잡으면 곧바로 죽여서 잡아먹지만, 기생생

물은 대체로 숙주를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둔 채로 오랫동안 영양분을 빨아먹는다. 그러나 포식동물과 기생생물은 행위 방식이 다를 뿐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를 게 없다. 포식과 기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관계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경쟁^{competition}이다. 혼자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상황에 경쟁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경쟁은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부정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다윈이 너무 지나치게 생존투쟁^{struggle for existence}을 강조하는 바람에 경쟁은 실제보다 훨씬 지나치게 부각된 듯 싶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은 많다 보니 경쟁은 불가피한 삶의 현실이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조건 상대를 죽이거나 제압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다윈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관계들을 설명했다.⁵⁾ 다윈의 이론을 소개하고 적용하던 스펜서^{Herbert Spencer}, 헉슬리^{Thomas Huxley} 등 이른바 ‘다윈 전도사들’의 오류가 공연히 상황을 악화시킨 면이 크다. 생물학자들은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바로 꽃가루를 옮겨주고 꿀을 대가로 제공받는 현화식물과 곤충의 관계가 자연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공 사례다. 생물중량^{biomass}으로 볼 때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성공한 생물 집단은 고래나 코끼리가 아니라 꽃을 피우는 식물이고 숫자로 가장 크게 성공한 집단은 단연 곤충이다. 이 둘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물고 뜯은 게 아니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우리 삶 가장 가까이 존재하며 구태여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상이다. 지구 최대의 성공이 경쟁이 아니라 공생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관찰이 너무나 손쉽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건만 그동안 우리 인간 사회는 애꿎게 경쟁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은 낭비를 선택한다.” 내가 평생 자연을 관찰하며 얻은 또 하나의 소중한 깨달음이다. 자연에게는 계획이 없다. 다음 세대가 맞이할 환경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에 걸맞게 자손의 형질과 규모를 기획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자연은 필요 이상으로 많

4) 새뮤얼 보울스, 허버트 긴티스 지음, 최정규 옮김. “협력하는 종: 경쟁하는 인간에서 협력하는 인간이 되기까지.” 한국경제신문사 (2016).

5) 찰스 다윈 지음, 장대익 옮김. “종의 기원.” 사이언스북스 (2019).

이 생산한다. 민들레 한 송이에서 웬만한 잔디밭 하나쯤은 너끈히 석권할 수 있을 숫자의 씨앗이 날려 나온다. 대부분의 동물들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자식을 낳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태어난 차세대 주역들은 생존투쟁을 거치며 적자생존의 아픔을 겪는다. 그 과정이 바로 자연선택이다. 만일 자연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알맞게 번식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물다양성 biodiversity은 생성되지 못했을 게 분명하다. 자연이 낭비를 선택한 덕택에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거품예찬’이라는 책을 썼다.⁶⁾ 거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의 모습이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거품이라 하면 거의 두드러기가 돈을 지경으로 싫어할까? 자본주의란 본디 공급자는 물건을 생산해 팔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고, 소비자는 공급자가 꺼내놓은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며 역시 자유롭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체제를 의미하건만, 우리 사회는 자꾸 공급 과잉을 거품으로 규정하고 시장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정부를 비난한다. 심지어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많은 고학력자를 양산한다며 교육에까지 시장 논리를 들먹인다. 슈퍼컴퓨터를 돌리면서도 내일 날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우리 교육부는 무슨 신통력을 지녔는지 20년 후 직업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학의 전공 과정에 미래 수요에 걸맞은 입학 정원을 결정해주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넘쳐야 흐르는 법이다. 우리 드라마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배경에는 한때 ‘드라마 공화국’이라는 언론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민영 방송과 종편 방송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양 프로그램에 주력하라는 요청을 받는 국영 방송까지 가담해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덕분에 그들 중 대부분은 도태하지만 살아남은 몇몇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는 것이다. 자연선택은 자연계의 생물들에게만 적용되는 메커니즘이 아니다. 우리 삶 모든 현상이 다 자연선택의 시장이다. 자연은 절제와 기획보다는 낭비를 선택하고 자연선택에게 발전의 책임을 떠맡겼다.

생물학자들은 종종 자연주의적 오류의 가장자리를 넘나든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당연히 자연스러우니까 좋은 것이라는, 즉 현상에서 당위를 이끌어내는 오류의 유혹에 흔들린다. 자연에서 자연스럽다고 해서 인간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워야 할 까닭은 없다. 엄청나게 많이 태어난 후 대다수는 끝내 자연선택 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민들레 씨와 모기의 유충 장구벌레에게는 아직 마땅한 생존권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인권을 보장하기로 오래 전에 합의했다.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든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모름지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즉 인권이 주어진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자연선택의 횡포 따위에 낭비될 수는 없다. 미국 생태학자 개럿 하딘 Garrett Hardin은 일찍이 “생태학은 포괄적인 과학이고 경제학은 그것의 작은 전문 분야다”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는 흔히 전통과 문화,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에 의해 규정되는 도덕적 함의와 기준이라고 정의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최근 들어 ‘따뜻한 자본주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철학자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은 이런 고민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명명시켰지만⁷⁾, 이제는 경제가 도덕을 제대로 품어야 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가격을 매기면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자산이 잠식된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계층화, 사회적 불안정으로 대변되는 ‘야수 자본주의’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에 기반한 정치적 자유주의를 확립할 수 없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 men as they are’을 두고 ‘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laws as they might be’를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은 결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다. 새뮤얼 보울스는 그의 근저 ‘도덕 경제학’⁸⁾에서 법을 설계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할 때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행위 모델로 삼는 것이 합리적

6) 최재천 지음. “거품예찬.” 문학과지성사 (2016).

7) 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옮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외아즈베리 (2012).

8) 새뮤얼 보울스 지음, 박용진, 전용범, 최정규 옮김. “도덕경제학.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 흐름출판 (2020).



일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정책을 펴면 도덕적 무관심과 이기심이라는 가정을 점점 더 사실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벌금이나 보상 같은 물질적 인센티브가 때로는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흘David Hume이 주장하는 대로 부정직한 사람의 탐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리 정교하게 인센티브를 설계하더라도 인센티브만으로는 좋은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없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다. 선한 시민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새롭게 발굴하고 보듬어야 할 가치가 바로 ‘사회적 가치’다. 물은 동서로 나뉘지 않고 늘 섞여 함께 흐른다. 나는 그런 시민을 ‘호모 심비우스 Homo symbiosus라 부른다.